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그는 지구분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 것과 경험에 의존하는(not 무관)이 비교대조 되고 있다.
지식이 두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 또한 중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 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경험에 의존하는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방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하고 넘어가자.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안되는 문장을 이해하려고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적당히 납득하고 넘어가는 습관도 중요함을 잊지말자.)
그리고 그들은 가설로부터 예측을 도출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을 통해 판단한다하고 넘어가면 된다.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을 보자마자 이 둘이 비교대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묶여 있었지만, 여기선 나뉘어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정말 정말 중요한 문장이다.

하지만을 보고 앞에서의 내용과 대비되는 내용이 나온은 자명하다.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은

콰인은 가설**뿐만이 아닌 다른 부가적인 요소도 있어야**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앞에서 나온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만 가지고도**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금속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예를 들어’를 보고 이 문장은 예시임을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결국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전 문장의 **예시(재진술)** 이라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하면 예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될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과 조건 등의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전의 문장들을 재정리해주고 있다.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명한 이야기다.

예측을 도출하는데 가설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도출했으니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정확히 무슨 요소 때문에 예측에 실패했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을 알고 넘어가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고 나와있다.

그럼 뒤에는 아마 **콰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건데** maybe 논리실증주의자, 포퍼와는 다르게 구분은 필요없다고 하지 않을까 약한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역시 콰인은 논리실증주의자, 포퍼의 의견을 부정하는 논증을 제시하는구나

그리고 이 뒤에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 내용의 목적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함을 잊지만 않으면 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각각 동어 반복 명제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의 예시임을 알아야한다.

또한 ‘분석 명제이다’임을 보고 분석 명제의 정의를 대응시켜 읽었어야 한다.

그러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구나 이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콰인은 저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게 후자(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예시를 때려박으면서 읽었어야 한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환원이 가능한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서로 대체하더라도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사실은 예시를 박아넣으면서 읽으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능)

이따위 구분(총체주의 정당화)을 하는게 의미가 없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게 명확히 순환 논리인 것을 아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만 받아도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의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라는 것이 **문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포퍼의 말대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응~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네.

그리고 뒤에는 maybe 콰인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나와야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앞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경험의 유무를 대상으로 명제를 구분했고
콰인은 어쨌든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유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 충돌하지 않는=간접적으로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럼 ‘중심부 지식은 주변부 지식에 비해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즉 바뀌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예측했던 대로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멀리 떨어져있지만**’에 주목했다면 멀리 떨어져있지만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를 수정할 수 있겠지 납득하고 넘어가면 무리가 없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한다.

주변부 지식, 않지만 에 주목했다면 중심부 지식은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체 지식이 크게 변화한다는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무리가 없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 주장한다.

‘**아니라**’를 보고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을 주목하여 봤다면 여태까지는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었지만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보이더라도**’에 주목한다면 ~한 일이 있더라도 ~ 할 수 있다와 같이 전개될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보이더라도’를 통해 **맥락을 통해 파악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역시 자명하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를 주목하고 생각했다면 앞에서는 **장점**에 대해서 나왔으니 그러나 뒤로는 **단점이나 한계**에 대해 서술할 것임을 알 수 있다.